

문1. 정답 ④

‘잠그다’는 어간 ‘잠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 용언이다.

① ‘흐르다’는 ‘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② ‘파랗다’는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결합하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하는 ‘ㅎ’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③ ‘이르다’는 어간 ‘이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문2. 정답 ③

다의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로, 소리가 같고 의미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의 ‘죽다’는 각각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와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를 뜻하므로 다의어이다.

① 첫 번째 문장의 ‘눈’은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뜻하고, 두 번째 문장의 ‘눈’은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을 뜻하므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다.

② 첫 번째 문장의 ‘쓰다’는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를 뜻하고, 두 번째 문장의 ‘쓰다’는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를 뜻하므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다.

④ 첫 번째 문장의 ‘치다’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게 뿌리다.’를 뜻하고, 두 번째 문장의 ‘치다’는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를 뜻하므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다.

문3. 정답 ①

제시문에서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안정감을 가져 봐.’와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애길 하니?’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음을 다잡고 일단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구나.’에서 조언을 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4. 정답 ①

먼저 (나)와 (라)를 비교하면, 보다 상위의 개념인 ‘소통 방식’ 중에서 중심 화제인 ‘면 대 면 소통’을 언급한 (나)가 첫 문단으로 오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면 대 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설명한 (라)가 이어지며, 그 다음은 면 대 면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는 (가)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나’를 사용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는 (다)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5. 정답 ②

㉠: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하면 ‘땅이 두터우니’가 들어갈 자리이므로 ‘地厚’가 적절하다.

地(땅 지): 온누리(也) 큰 뱀의 형상)에 잇달아 흙(土)이 깔려 있다는 뜻을 합(合)한 글자로 「땅」을 뜻함.

厚(두터울 후): 뜻을 나타내는 민엄호(厶) 굴바위,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후(후)로 이루어짐. 산이 두텁게 겹쳐 있는 뜻. 또 흙을 쌓아 올리거나 제사 음식을 수북히 담는다는 뜻에서 융숭한 마음이라는 뜻도 나타냄.

•지후(至厚 이를 지, 두터울 후): 인정 따위가 매우 두텁다. 至: 새가 땅(一)을 향하여 내려앉는 모양이라 하여 「이르다」를 뜻함.

•后(뒤 후/임금 후): 사람이 쪽 몸을 펴고 있는 모양의 尸(시)의 변형(變形)인 后(후)에서 口(구)를 뺀 나머지 글자와 음(音)을 나타내며 동시(同時)에 구멍을 뜻하는 口(구)로 이루어짐. 나중에 단순(單純)히 뒤의 뜻이 됨. 음(音)을 빌어 임금의 뜻(侯후 · 皇황)으로 쓰이고, 다시 侯(후)를 남자 임금, 后(후)를 여자(女子), 곧 황후(皇后)의 뜻으로 함.

•侯(제후 후):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후)가 합(合)하여 이루어짐. 옛 자형(字形)은 후(민엄호(厶) 굴바위, 언덕)部 + 矢)로 활을 쏘아 맞히는 과녁의 뜻의 회의자(會意字). 또 왕후(王侯)의 侯(후)의 뜻에 빌어 쓰여졌음.

㉡: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하면 ‘나뭇잎’이 들어갈 자리이므로 ‘樹葉’이 적절하다.

•樹葉(나무 수, 잎 엽): 나무의 잎.

樹: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樹(세울 주) 손으로 물건(物件)을 세운 모양→수)와 살아서 서 있는 나무(木)의 뜻이 합(合)하여 「나무」를 뜻함.

葉: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艸) 풀, 풀의 싹)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葉(엽)이 합(合)하여 이루어짐. 世(세)는 삼십년, 여기에서는 수가 많음을 나타내며 또 나무가 대나무의 잎의 모양에 비슷하게 하여 쓰고 있다고 생각됨. 葉(엽)은 나뭇잎, 나중에 植物(식물)을 나타내는 초두머리(++=艸) 풀, 풀의 싹)部를 붙여서 葉(엽)이라고 씀.

•木葉(나무 목, 잎 엽): 나뭇잎

木: 땅에 뿌리를 박고 선 나무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나무」를 뜻함.

•草(풀 초):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艸) 풀, 풀의 싹)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早(조→초)가 합(合)하여 이루어짐. 풀의 뜻으로는 처음에는 艸(초)라고 썼지만 나중에 음(音)을 나타내는 早(조→초)를 곁들여 草(초)로 쓰게 되었음.

㉠: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하면 '가을은 서늘하여'가 들어갈 자리이므로 '秋涼'이 적절하다.

•秋涼(가을 추, 서늘할 랑): 가을의 서늘한 기운.

秋: 禾(화곡식)와 火(화불→말리는 일)로 이루어짐. 秋(추)는 곡식(穀食)을 베어서 말리다→그렇게 하는 계절(季節)→가을.

涼: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示水, 氷)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京(서울 경→랑)이 합(合)하여 이루어짐.

•科(과목 과): 곡식(穀食)(=禾)을 말(斗)로 헤아리다는 뜻이 합(合)하여 「조목」, 「과목」을 뜻함. 科(과)는 곡식(穀食)을 된다는 데서 물품(物品)을 분류하다, 조사하다의 뜻. 곡물(穀物)을 말로 되어 나눈다는 것이 본 뜻. 정도(程度), 품등, 과목 등을 뜻하게 됨.

•私(사사 사): 뜻을 나타내는 비화(禾곡식)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동글게 에워싸다→자기 것으로서 거두어 넣다」의 뜻을 가지는 글자 私(사)가 합(合)하여 이루어짐. 수확(收穫)할 때 자기 몫으로 한 것→나→몰래의 뜻을 나타냄.

•諒(살펴 알 랑):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공손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京(경→랑)으로 이루어짐. 공손한 말의 뜻. 전(轉)하여 성실의 뜻으로 쓰임.

문6. 정답 ②

(나)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랄손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행위를 망령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임금을 위한 일임을 밝히고 있으며, '임이 해여 보소서'에서 자신은 무죄하니 임금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내 몸의 해를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에서 자신의 일을 갈고 닦을 것이라는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에서 '주야'에 흐르는 '시내'를 통해 임금에 대한 끝없는 충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라)의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에서 화자는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현대어 풀이]

슬프나, 즐거우나 (남들이) 옳다고 하거나, 그르다고 하거나

내가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지

그밖에 다른 일이야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 일이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해서 모르겠는가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모두 임금을 위하기 때문일세
아무개가 아무리 험뜯어도 임금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추성의 진호루 밖에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느냐?
(너도) 임을 향한 내 마음처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산은 길기도 하고 물은 멀기도 하고

부모님을 그리는 내 마음은 많기도 한데,
어디서 짝 잃은 기러기는 슬피 울며 가는가.

문7. 정답 ③

'동행하다'는 '같이 길을 가다'를 뜻하며, 부사어 '~과/와'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의 사례이다.

① 주어 '내 말의 요점은'과 서술어 '노력하자'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의 사례이다.

② '내가 직접 되기로'에서 '되다'는 보어 '~이/가'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의 사례이다.

④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에서 '의지하다'는 부사어 '~에게'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의 사례이다.

문8. 정답 ②

'개이지 않다'는 어떤 일 따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황만근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황만근이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 앞 문장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를 볼 때 아는 것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주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그의 겸손함이 다른 사람을 감탄하게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황만근이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선생은 솔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와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를 볼 때 '술'이 황만근의 삶의 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9. 정답 ①

1문단의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와 2문단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에서 '똘', '행', '뿔'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확장 완성형'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와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10. 정답 ④

1문단에서 '계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문단에서 '일부 국가'와 'A국'을 비교하여 A국을 '리버티'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인 '리버티'임을 설명하였다.

2문단의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일부 국가'의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강제로부터의 자유' 곧 '리버티'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3문단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강제로부터의 자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계약의 전적인 부재라면'과 2문단의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에서 A국 시민들은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11. 정답 ③

괄호 앞 문장을 보면,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교화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의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② 법률을 엄격하게 정해야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계층 통합에 힘쓰는 것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12. 정답 ③

이 작품은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여인의 비극적 삶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간적 순서는 '2연-3연-4연-1연' 순서이다.

① '가지취', '금전판', '머리오리' 등에서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에서 어린 딸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가을밤같이 차가 울었다'에서 공감각적 표현(청각의 촉각화)을 사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문13. 정답 ④

2문단의 "전통적인 농업은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화, '중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에서 로컬푸드 운동은 거대 자본과 상반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농가가 거대자본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① 1문단의 '이는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이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생산·유통·소비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일컫는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문14. 정답 ③

①은 인화 남자가 본인의 공을 자랑하는 부분으로,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에서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① 풍자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내면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문15. 정답 ④

두 제시문 모두 패배가 예상되던 북한 팀과의 경기에서 한국팀이 우승하여 메달을 얻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제압'은 '위력이나 위엄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함'을 뜻하므로, '승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전달한 (나)가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한국 팀은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나)는 '초반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에서 전술이 적절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열세'는 '상대편보다 힘이나 세력이 약함. 또는 그 힘이나 세력.'이라는 뜻으로, (가)에서는 이를 통해 경기 전 북한 팀보다 한국 팀의 실력이 낮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 '예상을 뒤엎고'라는 표현 역시 한국 팀의 실력이 북한 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문16. 정답 ④

3문단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에서 보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소비자의 필요와 사회적 영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소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한다는 설명은 적절한 추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2문단 '이미 몇 세대에 걸쳐 과시적인 소비를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② 3문단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1문단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문17. 정답 ④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면, 청중의 계층이 다양했기 때문에 언어의 층위가 다채롭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층층이 쌓임.'이라는 뜻의 '적층적(積層的)'이 가장 적절하다.

① 골계적(滑稽的):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

② 연행(演行): 배우가 연기를 함.

③ 우화(寓話):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문18. 정답 ④

'안절부절하다'는 '안절부절못하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안절부절못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안절부절못하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① 우연찮다: 꼭 우연한 것은 아니나 뜻하지도 아니하다.

② 변변하다: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

③ 칠칠하다: ((주로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여))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문19. 정답 ②

②는 한 문장의 성분을 다 갖춘 동격 관형절이다. 나머지

①, ③, ④는 한 성분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① 부사어 '서점에서'가 생략되었다.

③ 주어 '땀이'가 생략되었다.

④ 주어 '사람들이'가 생략되었다.

문20. 정답 ②

ㄱ은 3문단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ㄴ은 2문단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의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와 '공평성이 성

립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의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ㄷ에서 설명하는 게임은 '공평한' 게임이지만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공평성'은 '판단의 결과가 가능한 결과들 중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은 두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므로 '공평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ㄴ은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